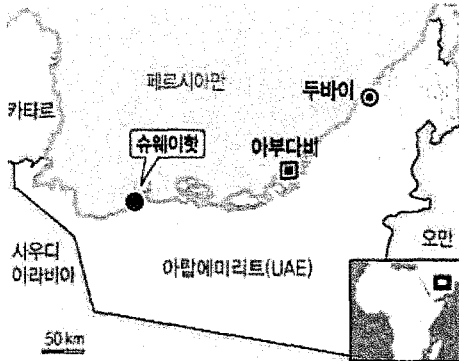


한전, 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수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지난달 1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수전력청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1,600MW 슈웨이hat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

발전소 부지는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60km 지점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는 15억 달러 규모다.

한전 컨소시엄에는 일본 스미토모 상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발전소 건설은 대우건설과 독일 지멘스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한전은 내년 2월까지 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을 시작, 2014년 3월1일부터 발전소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전, '119 재난구조단' 창단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지난달 19일 국내 공기업 최초로 '119 재난구조단' 을 창단했다.

구조단은 한전 직원 110명으로 구성돼 평소에는 본연의 업무를 보다가 상황 발생시 재난지역으로 출동, 구조활동을 펴게 된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형 재난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현장 복구 등 각종 구호 활동을 하며, 지역 응급 의료센터로 등록돼 있는 한일 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남아공 부통령 신고리건설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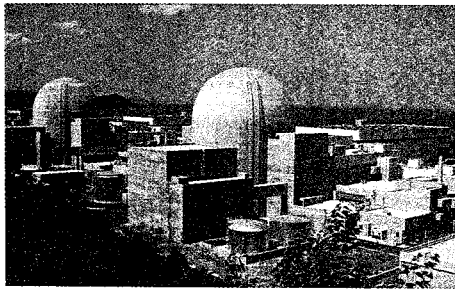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칼레마 페트루스 모틀란테 부통령이 지난달 8일 한국형 원전을 시찰하기 위해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칼레마 페트루스 모틀란테 부통령은 신고리건설 현장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에 양국 간의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건설 현장 방문에 앞서 모틀란테 부

통령의 환영오찬을 고리본부 사택 내 한빛플라자 식당에서 개최했다. 환영오찬을 마친 뒤 모틀란테 부통령은 김종신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고리전망대와 APR플라자에서 APR1400 건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고리 3호기 원자로건물 등 신고리 원전 주요 시설과 원자력 교육원 및 교육훈련센터를 둘러보았다.

울진 5호기 한국표준형원전 계획예방정비 최단 공기 달성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 울진원자력본부 제3발전소는 울진 5호기(한국표준형원전 1,000MW급) 계획예방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달 9일 계통병입을 완료하였다.

울진 제3발전소는 이번 울진 5호기의 제5차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하면서 'Mission 22, HAPPY O/H'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정과 정성을 쏟았으며, 그 결과 한국표준형원전 최단공기인 21.5일(기존 22.5일)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계통병입에 들어간 울진 5호기는 단계별 출력상승시험 및 특성시험을 거쳐 10월 12일 100% 출력에 도달했다.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4000일 무고장 운전' 달성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의 보령화력발전소 3호기가 국내 최장기 4000일 무고장 운전 기록을 달성했다.

보령화력 3호기는 1998년 12월 17일부터 2010년 10월 7일까지 11년 10개월간 무고장 운전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기록이다.

남부발전, 성산풍력 20MW 준공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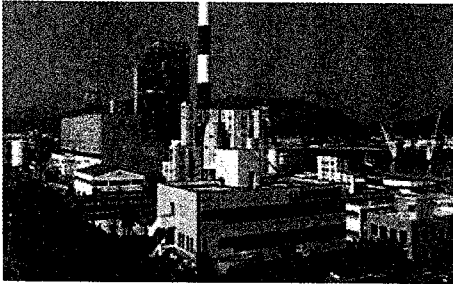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지난달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서 성산풍력발전소 종합준공식을 개최했다.

설비용량 총 20MW의 성산풍력은 지난해 3월 1단계(2MW×6기) 준공에 이어 2단계(2MW×4기) 추가 준공으로 종합준공되었다.

성산풍력은 한전기술이 설계를 담당하고 STX중공업이 주기기공급 및 시공을 담당했으며, 발전기는 호기당 2MW 용량의 첨단 원격제어 시스템을 갖춘 덴마크 베스타스의 설비로 건설됐다.

남부발전은 발전회사 최초의 상업 풍력발전 시설인 한경풍력(21MW)에 이어 이번 성산풍력 종합준공으로 제주도내 전체 풍력발전 설비용량(89MW)의 절반수준인 46%를 운영하게 됐다.

'친환경' 가스화 복합발전소 추진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은 울산화력발전소 1~3호기를 오는 2014년까지 폐기하고 그 대체시설로 울산 앞바다를 메워 가스화 복합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90억원을 들여 울산화력발전소 앞 해상 10만6600㎡를 매립해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 공람을 시작했다.

11월 중 지역 주민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1조여원을 들여 가스화 복합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한전KPS, 공기업 최초 12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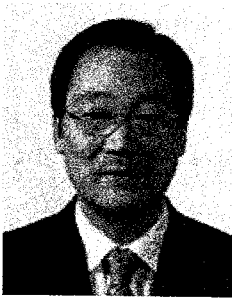
한전KPS(사장 태성은)가 품질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공기업 최초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2년 연속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달 20일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 행사를 개최하고, 지속적 성장경영을 위한 한전 KPS의 전사적인 품질혁신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며 선정서를 수여했다.

한전KPS는 그동안 CEO의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인 '지속적 성장 경영' 과 연계한 품질경영추진전략인 'IMQ(Innovative Management

Quality)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독자적인 품질혁신 활동인「Challenge 6 Sigma」운동을 전개해 지난 한 해 동안 224억 원의 유형효과를 창출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 차세대 핵연료 개발나서



한전원자력연료(대표 김기학)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1982년 설립 이래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수로용 원자력 연료와 중수로용 원자력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경수로 연료 550t-U, 중수로 연료 400t-U다. 2008년부터 원자력 연료 금속피복관을 연간 1400t 자체 생산한다. 연간 2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선도형 고유 원자력연료 개발사업인 'X-Gen'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효성, 수도권전기공고와 산학협력 MOU체결



효성(사장 조현준)은 지난달 20일 기술을 갖춘 젊은 인재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특강, 인턴실습, 채용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산학협력 계획이 포함돼 있다.

효성 임직원들은 당장 이번달부터 직접 수도공고를 방문해 전력 산업 현장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특강 형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졸업반인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인턴 실습 기회를 제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산업현장에서 적용해 실무 감각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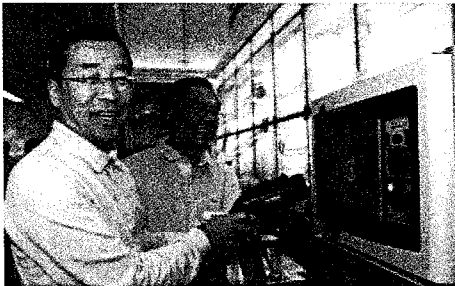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국내 최대 박막 태양전지 공장 설립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유리·건축자재 업체인 프랑스 생고방 그룹과 국내 최대 규모의 박막태양전지(CIGS) 공장을 설립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8일 프랑스 파리 생고방 그룹 본사에서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과 드 살렌다 생고방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막 태양전지 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생고방 그룹은 50 대 50으로 모두 2200억원을 투자, 합작 법인을 설립해 오는 12월 국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12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LS, 전기차 충전기 12대 설치



LS전선(대표 구자열)과 LS산전(대표 구자균)이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내에 12대의 충전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전기차용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5대와 완속충전기 7대로 주유소·공항·대형마트 등에 배치됐다. 충전속도는 급속 20분, 완속 6시간 충전으로 현대차 블루온 기준으로 140km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과 LS전선·LS산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충전기 설치하는 지난달 12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고속 전기자동차용 충전 인프라 구축과 지난 5월 LS전선과 서울메트로가 맺은 도시철도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개발 협약식 체결에 이은 것이다. KEA